

수출·내수 격차 사상최대

韓銀 분석...2분기 GDP 대비 비중 각 65% - 48%

수출 호황에도 국내 부가가치·고용창출 효과 미미

대외 변수 취약한 구조...한국경제 '반쪽성장' 우려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경제가 균형있게 발전하려면 대외 부문과 대내부문의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사실상 한쪽이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계경제 침체 등으로 수출이 위축되면 경제 전반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경제가 대외변수에 구조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실질 GDP증가율에서 순수수출(수출-수입)이 차지하는 기여도 역시 3.3%로 내수의 기여도(1.8%)에 비해 2배 가까이 컸다. 이처럼 수출과 내수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90년대 들어 국내 산업이 수출 대기업, 특히 IT·전자 등 자본·기술집약적인 업종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수출 호조 '실속없다' =이처럼 수출과 내수의 연계성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수출이 아무리 호황을 이어가더라도 국내에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크게 떨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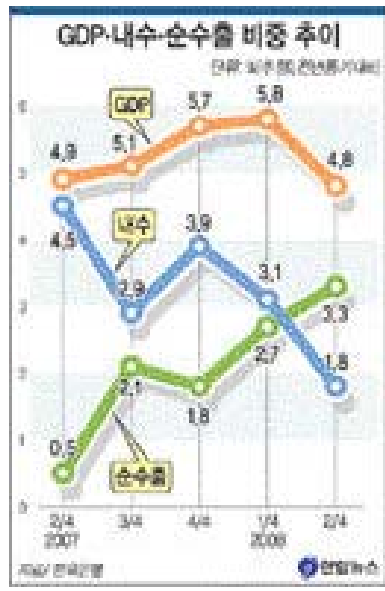
한은의 '2003년 산업연관표'를 보면 수출의 부가가치유발 계수는 2000년 0.633에서 2003년 0.647로 높아졌으나 95년의 0.698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고 일

본의 0.892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다. 부가가치유발 계수가 0.647이라는 것은 1천원어치 상품을 수출했을 때 국내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647원이며 나머지는 모두 해외로 빠져간다는 뜻이다.

특히 수출액 10억원당 취업자 유발효과는 95년 26.2명에서 2000년 16.6명으로 떨어졌는데 이어 2003년에는 12.7명으로 더 낮아졌다. 즉 수출을 늘리더라도 국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모두 낮다는 얘기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출효과는 아이슬란드, 멕시코,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27개 OECD 회원국 중 22위를 차지해 최하위 수준이다.

◇'내수 자체 경쟁력 높여야' =전문가



들은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수부문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내외간 연계성이 떨어진 것은 산업구조 측면에서, 그리고 세계화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측면이 있는 만큼 그 고리를 되살리기에 앞서 중소기업에 포함된 내수 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성장 3%·물가 5%”

商議, 하반기 전망 ... 유가는 120달러 수준

올 하반기에는 경제성장 3%, 물가 5% 내외의 상승이 예상되는 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경제구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정규현 연구소장은 28일 국회 경제정책포럼이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국회 경제정책 포럼 창립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렇게 예견했다.

정 소장은 “하반기 유가는 평균 120달러 수준에서 머물 것”이라고 전제하고 “하반기 한국경제는 경제성장률 3.3%, 소비자물가상승률 4.5%의 ‘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Mild-Stagflation)’을 겪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정 소장은 “하반기 유가가 150달러를 유지할 경우 경제성장률 2%, 물가상승률 5.8%를 기록하고, 200달러까지 치솟을 경우 마이너스 성장률과 물가는 12%를 넘어서는 급격한 스태그플레이션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임금 안정,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단기적 물가대책과 더불어 법인세 인하 등의 효율적인 조세제도 개편, 규제개혁, 부동산시장 활성화, 공공부문 선진화 등 성장잠재력 확충 대책도 세워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오상봉 산업연구원장은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외 위협요인을 고유가 충격, 미국 침체 및 서브프라임 쇼크,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재무상 등 3가지로 정리하고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의사·변호사수 확대, 고시제도의 개혁,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한 정부 및 준정부 기관의 효율성 제고 등이 필요하며 중소기업, 농업, 정보통신 산업 등 특정부문에 대한 정부보호 축소, 교사평가, 대학입시 자율화 등 교육산업 경쟁력도입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복숭아데이’ ... 시원한 얼음 화채 음화제를 시식하고 있다.

농협과 새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가 복숭아 홍보를 위해 2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2008 복숭아데이’ 행사를 개최, 시민들이 시원한 복숭아 얼음화제를 시식하고 있다.

경상수지 7개월만에 흑자

6월 중 수출 호조로 18억달러 ... 상반기 누적적자 53억달러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상수지가 7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6월중 국제수지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는 18억2천만달러 흑자를 냈다.

경상수지는 작년 12월 -8억1천만달러, 올해 1월 -27억5천만달러, 2월 -23억5천만달러 등으로 5월까지 6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냈으나 7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1~6월 누적 경상수지 적자도 53억5천만달러로 다소 줄었다. 그러나 작년 동기의 적자폭인 16억3천만달러보다는 3배 이상 많은 규모다.

지난달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데는 수출 호조가 큰 기여를 했다. 6월중 상품수지는 유가상승으로 수입증가율(33.0%)이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세가 전달 22.5%에서 30.5%로 늘어나면서 34억8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달 6억1천만달러 흑자보다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더욱 커졌다. 운수수지 흑자가 줄어든 데다 여행수지가 전달보다 2억3천만달러 늘어난 10억7천만달러 적자를 나타내고 사업서비스 지급도 늘면서 적자폭이 5



월 11억7천만달러에서 6월 21억3천만달러로 9억6천만달러 확대됐다.

소득수지 흑자는 배당 및 이자수입이 늘면서 전달 4억6천만달러에서 8억3천만달러로 증가했다. 자본수지는 외국인 주식 매도세 등의 영향으로 증권투자수지가 유출효과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39억9천만달러 유출효과를 기록했다.

직접투자수지는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가 늘면서 7억4천만달러 순유출됐다.

9월부터 아파트 분양가 크게 오를듯

국토부, 택지비·건축비 다 올려주기로

주택 분양가를 책정할때 택지비를 감점가가 아닌 실제 매입가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9월에는 또 기본형 건축비 인상이 예고돼 있고 소비자 만족도 우수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등에는 분양가를 추가해 줄 계획이어서 이래저래 다소 큰 폭의 분양가 상승이 예상된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보완해 택지비를 산정할 때 실제 매입비를 일부 인정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 1일자로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 조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택지비의 인정기준 변경도 이에 맞춰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택지비는 원칙적으로 감점이 기준이다. 그러나 감점가는 시세보다 낮은데 주택업체들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땅을 산 경우도 있어 이 기준에 따를 경우 수익성이 없어 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런 주택업계의 요구에 답성이 있다고 보고 매입비 전액은 아니더라도 감점가보다는 높게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9월에는 분양가를 구성하는 또 다른 축인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된다. 이는 6개월 단위의 정기 조정절차로 지난 8월부터 단품슬라이딩제 도입에 따라 4.4%를 올려준 데 이어 50여일만에 다시 상향조정해주는 것이다. 특히 지난 8월에는 건축비를 구성하는 자재중 철근가격의 상승분만 반영됐고 나머지는 이번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승폭이 훨씬 클 전망이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미분	조선기자재 관련 부문별 정규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30	062-946-7000
화천(지공)	사무보조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7/30	062-950-1521
오도허우스(지동차용전문화합인정)	카인테리어 장학기사(선팅,경보기,네비메탈,카오디오 등)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30	062-362-7288
한국인포데이터㈜ 전남본부	KT고객센터(100)일발상담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31	062-230-1603
S&P환경기술	총무부 경력직 사원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8/01	011-624-0648
삼성상사	매장관리 및 생활용품 판매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02	062-951-4910
제일기획	디자이너(디자인, 컴퓨터그래픽)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8/02	062-369-9300
㈜에스티에스미디어인	영업관리 담당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02	062-381-0980
㈜에스티에스커뮤니케이션	[광주/부산/서울]삼성생명콜센터 상담직(인바운드)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8/04	062-600-0802
ok웨딩클럽 광주센터	[OK웨딩클럽 광주센터] 웨딩플래너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05	062-223-0805
㈜에림컨설팅	건설현장 공사부 신입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06	02-514-5002
㈜남영엔앤에프 광주지점	매점운영 및 문서작성 업무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8/08	062-524-6360
㈜윌리스토크앤비	윌리스 키피 광주점주니어팀 매니저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08	062-371-0015

(광주직접코리아 512-6210 제공)

증권사 추천 종목들 등락장서 맥 못쫓다

매일 종목마다 월평균 수익률은 ‘-’

올해 들어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변동장세가 계속된 탓에 증권사들이 고심 끝에 내놓은 추천종목의 성적도 시장예 밑으로 나타났다.

28일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업종 13곳의 상위 10개 기업 130개사를 대상으로 영어평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영어면접(58.5%)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영어평가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면접은 2006년 조사에서 43.0%, 지난해 52.9%에 이어 5.6%p 또 오르며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증가했다.

이어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 성적(56.6%), 영어말하기 시험(31.1%), 자체 시험(6.6%) 등의 순이었다.

한편 공인어학성적이 일정 수준이어야 입사지원이 가능한 기업들의 커트라인은 토익을 기준으로 평균 706점인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대비 초과수익은 1월 말 -3.49%포인트, 2월 말 -1.87%포인트, 3월 말 -0.41%포인트, 4월 말 -0.22%포인트, 5월 말 -1.77%포인트, 6월 말 -1.36%포인트를 기록했다.

7월애이 이 회사의 톱-10포트폴리오가 코스피 지수(-14.28%)보다 1.19%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냈으나 그래도 -13.09% 손실이었다.

해외여행객 ‘주춤’

상반기 1,300만명 1.4% 증가 그쳐

올들어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해외여행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인천국제공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출국한 여행객은 1천326만명으로 작년동기 1천308만5천945명에 비해 1.4% 늘어나는데 그쳤다.

인천국제공항이 2001년 개항한 이후 지난해까지 이용객수가 매년 10% 이상 증가했던 점을 감안하면 그 상승세가 ‘주춤’한 것이다.

입국자는 653만4천508명에서 665만3천255명으로, 출국자는 655만1천437명에서 661만5천738명으로 증가율이 각각 2.0%와 1.0%에 불과했다. 특히 입국 여행객의 휴대품에 대해 세관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치건수는 지난해 2만9천700건에서 올해 2만5천367건으로 15.0% 감소했다.

현재 입국 여행객의 면세품위는 미화 400달러(약 40만원) 이하인데 이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세관에 유치된 휴대품은 이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이다.

작년 대비 세관에 유치된 물품의 감소규모를 보면 카메라류(-56%)가 가장 컸고 화장품(-49%), 구두(-40%), 고급시계(-39%), 의류(-32%), 골프채(-27%), 핸드백(-6%) 등이었다. 반면 주류는 작년 1천825건에서 올해 2천415건으로 32.0%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외화반입의 경우에는 1만3천여건에 12억3천500만달러(약 1조2천억원)로 작년동기보다 건수는 13%, 금액은 15% 증가했다.

외화반출은 1천100여건에 5천550만달러로 건수 대비로는 26% 감소한 반면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72.0% 늘어났다.

부동산 중개법정도 주택 분양 대행

내년 상반기부터 산 중개법인도 모든 주택

에 대해 분양대행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중개법인에 대한 분양대행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개법인도 모든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미분양인 경우에만 중개법인의 분양대행이 허용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대행과 관련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가 없고 중개법인에 대해서 제약이 뒤 왔는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 관할구역내에서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중개수요에 맞춰 사무소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중개보조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중개업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중개업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공포 뒤 3개월 이후 시행할 계획이어서 내년 상반기중에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